

“민음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교회 (사 54:2)”

예 배 순 서

1부 08:30 AM
2부 11:00 AM

2021년 7월 4일 인도: 김정국 목사

경배와 찬양 다 같 이
Praising

* 예배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 신 앙 고 백 다 같 이
Confession 사도 신경

* 성 시 교 독 다 같 이
Responsive Reading 교독문 77. 요한복음 3장

찬 송 다 같 이
Hymn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기 도 최준택 장로
Prayer (통 539장)

성 경 봉 독 인 도 자
Scripture 이사야 5:1-2

찬 양 다 같 이
Choir

말 씬 김정국 목사
Sermon 포도원의 들포도

찬 송 다 같 이
Hymn 420장 너 성결기 위해

헌 금 기 도 김정국 목사
Prayer (통 212장)

헌 금 다 같 이
Offering

알 림 김정국 목사
Announcement

* 찬 송 다 같 이
Hymn 393장 오 신실하신 주

* 축 도 김정국 목사
Benediction (통 447장)

* 표는 다같이 일어서서

오늘의 말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5:2)

말씀아침 새벽본문	5(월)	6(화)	7(수)	8(목)	9(금)	10(토)
	사28-31	사32-36	사37-40	사41-44	사45-48	사49-53

알리는 말씀

본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방문카드를 작성하셔서 안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예배 후 성도간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모임

11:00 am 주일예배

주중일정

(화)~(금) 5:45 am 새벽기도회
(수) 8:00 pm 가스펠 프로젝트 인도자(온라인)
(목) 7:00 pm 제자반 훈련(온라인)
(금) 8:00 pm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II(온라인)
(토) 10:00 am~1:00 pm 교육부 성서학당

다음주 행사

11:00 am 주일예배

기타사항

- 7월부터 모든 주일예배를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 7월 한 달간 금요 가스펠 프로젝트는 온라인 모임을 유지합니다.
- 2021년도 상반기 감사가 7월 5일과 11일 두 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 7월 교회청소구역담당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 헌금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임명: 재정부장 정윤권 장로

교우 동정

전승평 원로장로 타주 방문(2주)
한상모(한윤정) 집사 사업오픈 'ALEX HAN'
*감사예배: 12:45 pm, 3633 W Lake Ave, #LL4, Glenview
건물 뒤편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입구와 가깝습니다.

목회자 동정

김정국 목사(배소연) 한국 방문(7/5~7/24)

* 다음주 예배 및 봉사위원

- 안내: 정윤권 장로 노진희 권사
- 헌금: 이재희 장로
- 2부 기도: 이재희 장로

6월 14일~6월 27일 주일 헌금

김대욱 김성진 한준우 한윤정 이성민 이영일 이옥자 김대욱 이상철 박정금 이상철 한은희 조현식 김준영 한준우 김성진 김성진 한윤정 이수정 이보람 박지환 이재희 김정국 한윤정 김성진 김정국 장규성 김성진 장규성 김성진 박지환 이용삼 김정국 김길봉 김대욱 박부명 이재희 전승평 정윤권 최준택 김순자 김준영 김진호 김태중 나영매 박지환 방인덕 손상근 이상철 윤방지 이상길 이을승 임정자 이준세 이태화 이홍자 임동규 장규성 정진원 채민병 한상모 송춘자 전재영 무 명

<완화된 교회 오픈 안내>

- 예배참석신청: 신청없이 참석(자가진단필수)
 - 주중모임: 현재 온라인 모임 당분간 유지
 - 6ft 거리두기: 백신접종자 한하여 한 자리 간격
 - 마스크착용: 예배 및 대그룹 모임 마스크착용
 - 점심친교 및 교제: 식사 없이 간단한 커피교제
 - 건물출입문 운영: 주일오픈(Unlock), 주중제한오픈
 - 주일1부 및 교육부 예배: 단계적재개 목표로 준비
 - 찬양대 및 찬양팀: 백신접종자 중심으로 단계적재개
- *CDC 방역지침 참조

7월 청소구역담당

- *예배당(책임: 이재희)
안드레/여호수아(남)/정년
- *친교실(입구)(책임: 정윤권)
여호수아(여)/에스터
- *화장실(4곳):(책임:서줄리)
이삭/리브가/베드로/마리아
- *교실:교육부/PTA(책임:김태중)
- *성가대실: 성가대(책임: 한은희)
- *사무실: 목회실(책임: 각자)

파송선교

중동B

1불선교

브니엘다민족교회
트리니티 한인학생회
말알선교회
시카고 워십

우리는 복음에 대한 좋은 말을 듣기 위해 선한 일을 한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나서 그들과 복음을 나눌 때, 그들은 미끼를 던지는 상술을 쓴 것이라는 논란이 때때로 제기된다. 그럴 수도 있다. 특히 기독교인이 자신의 복음 전도를 자신의 신앙 등급을 올리는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그렇게 되면 그의 선한 행위도, 그의 복음 전도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복음 전도는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욕망에 바탕을 둔 것일 것이다. 그 안에서 사랑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전도에 대한 정말 끔찍한 사고방식이다. 복음 전도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곤경에 처해 있으며 어떻게 곤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행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다. 그래서 사랑과 연민의 한 행위(복음전도)에는 덜 중요한 다른 사랑과 연민의 행위가 합법적으로 동반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전인적 인간을 사랑해야 하며, 따라서 음식을 줌으로써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복음을 줌으로써 그를 다른 방식, 곧 더 높은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다. 거기에는 어떤 미끼 상술도 없다. 그것은 전인적인 연민이며, 단지 그 사람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연민이다.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미끼 상술이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반대가 되는 위험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연민으로 육체적인 필요와 심지어 감정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지만, 미끼 상술 시나리오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연민으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소홀히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사람들에게 연민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과연 진정한 연민인지 아닌지에 대해 합법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현실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연민에 기인한 행동으로 보지 않는 것은, 복음 전도를 자신의 신앙 등급을 한 단계 올려놓는 방법으로 보는 사람이 자기 행동을 연민에 기인한 행동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단지 그들은 복음을 자신들이 팔려는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장사치의 고함 소리로 자신들의 연민을 '타락'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도 그 자체를 다른 사람에 대한 깊고 심오한 사랑의 행위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자주 복음을 전도할 것이다(우리는 단지 장사치의 고함 소리를 내고 있다는 어색한 느낌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동기(우리 자신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로 복음을 전도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육체적, 감정적인 욕구뿐 아니라 영적인 욕구를 통해서도 사랑과 연민을 품게 되는 기독교인이라면, 복음을 나누는 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최선선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복음 전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나눔이 따르지 않는 선행도 여전히 할 가치가 있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무를 심거나, 일하기에 이미 늦었을 때 누군가에게 샌드위치를 사 주고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다스림 아래에서 열매를 맺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지위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있는 그 무엇인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교회의 사명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왕국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말없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단지 구속받은 인간이 행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중생한 한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다음에는 누군가에게 샌드위치를 사 줄 때, 여러분은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처음으로 설명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케빈 드 영, <교회의 선교란 무엇인가> 중에서-

가정예배 7월 첫째 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

함께 기도 |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문을 읽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함께 읽기 | 아래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야고보서 2:1-13

함께 묵상 |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성도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절)

2.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12-13절)

함께 나눔 |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출처: 성서유니온선교회>

CANAAN CHURCH

가나안교회는 선교·교육·봉사를 목표로 1976년 11월 28일 나일스 지역에 세워져, 말씀과 신앙, 믿음과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로서, 성경을 바탕으로 복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장로교 전통의 독립교회입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05:45
금요일예배	저녁 08:00
선교회모임	매월 둘째 주
구역모임	매월 셋째 주

교회학교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01:00
금요모임	저녁 08:00

청년회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모임	저녁 08:00

부속

라인댄스반	목요 오전 10:00
가나안한국학교	토요 오전 09:30

섬기는 사람들

원로목사	이용삼	847-724-2456
담임목사	김정국	224-577-5229
전도사(유치)	이수정	224-587-3815
전도사(유년)	서줄리	224-612-1315
전도사(Youth)	김태중	224-727-9830
지휘자		1부
		2부
파송선교사	양선한 허목자(중동)	

찾아오는 길



1255 N.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TEL: 224-735-2346 www.canaan.org

CANAAN CHURCH

